

환경자원총량제 '밈그림'... 합리적 보상 핵심

제주도, 어제 농어업인회관서 연구용역 설명회 열어 21개 평가항목 설정... 사유지 매입·조직 신설 관련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는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의 밈그림이 나왔다. 합리적 보상이 따르는 사유지 매입과 이를 관리할 조직 신설이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규제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증가, 산림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전지역의 총량을 설정, 개발 등으로 총량이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32억원을 투입해 2022년 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문·사회환경 ▷인구 ▷산업 ▷교통 등 4개 분야·21개 평가항목이 설정됐다. 이어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환경자원현황 조사'를 실시해 환경자원DB가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총량이 산정된다.

총량이 산정되는 초기 3년 정도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로 총량 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량 향상계획 대상지 선정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로는 사유지를 매입과 대체지 비축, 생태계와 등 3가지가 꼽혔다. 합리적 보상 수준으로 핵심지역 사유지를 매입하고, 생태계와 대체지 비축을 통해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은 초기 제주도청 내 신규 조직 운영에서 제주연구원 내 센터 운영, 신규 센터

설립 및 운영, 궁극적으로는 별도 재단 설립 후 운영이 제시됐다. 이 조직의 운영비는 연간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 교수는 "현행 환경부 기준으로는 사유지 매입 등의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매입 시 현실화된 금액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간 의견이 갈리지 않도록 초기부터 연계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설명회'에서 용역을 맡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환경자원 총량제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녹색당 "제2공항 들어서면 성산 양어장·과수원 폐업"

녹색당 정책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으로부터 성산 철새도래지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 나온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과수원,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사냥금지구역·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의 신규설치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들어 "공항이 설치되면 조류를 유인하는 성산 일대의 양어장이나 과수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성산 철새도래지를 파괴하는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송은범기자

"애월항, 여객물류항 전환 '주민숙원'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강성균 위원장 해수부에 요청 강창일·오영훈 의원도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이 내년 6월 고시 예정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여객물류항으로서 애월항의 기능 전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강 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김성범 항만국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거듭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애월항의 여객물류항 전환 내용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차관 면담 이후 해당 부서에서 우려하는 여러 문제 등을 담당 실무국장에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행차에 따르면 이날 강창일 국회의원은 "애월항이 현재 LNG항과 연계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과의 만나 협의가 된 상태"라며 "만약 여객선이 입항하게 되면 LNG운반선과의 운항일정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가 걱정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 문제는 애월주민의 숙원사항으로, 향후 서부권 관광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애월항의 여객물류항으로의 전환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김성범 항만국장은 "도에서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내용과 함께 애월항이 지방관리인 안전한 만큼 향후 도의 애월항 운영 방향 및 애월항 주변지역 정비계획 등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제출하면 다각적인 방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면담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강창일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남은 절반의 시간 더 중요"

후반 국정운영 지향점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절반의 임기를 국민들의 격려와 질책에 귀 기울이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다. 한 걸음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싹을 키웠다면, 임기 후반기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때까지 정부는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반은 넘어 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전환의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내고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해녀문화콘텐츠 공모 '바당어멍' 최우수

올해 해녀문화콘텐츠 문화상품발굴 공모전에서 25개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도가 주최하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를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는 전국 단위로 이뤄졌으며,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시됐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당어멍'은 강혜원씨의 작품으로 물질하며 참았던 숨을 내 쉬기 위해 잠시 수면위로 올라온 해녀의 모습을 모티브로 제작된 '황동 인센스 홀더'다.

이어 우수상인 '제주해녀, 그 물질의 방향'은 오승은씨의 작품으로 제주해녀 일러스트를 그려 만든 여권 케이스와 트래블 세트다. 송은범기자

도,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 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이다.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신청한 사업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민은 누구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실적 등이 공개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선흥리 4·3위령비 제막식

모시는 말씀

은 들녘이 노랗게 물들고 역새꽃이 한들거리는 가을에 선흥리 4·3위령비를 세우고 제막식 행사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영혼들의 넋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2019년 11월 15일 (금)

장 소
조천읍 선흥리 산 22번지(반못)

시 간

- 1부 봉제(09:00~)
- 2부 제막식(11:00~)
- 3부 해원상생당(13:00~)

연락처

- 리사무소 783-8885
- 위 원 장 010-5213-5060
- 유족회장 010-3696-8495

선흥리 4·3 위령비 건립추진위원장 오 중 배
선흥리 4·3 희생자 유족 회장 안시택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다. 남 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설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 2019년 11월 17일(일) 08:00
장 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 선착순 40명
•비 용: 10,000원(교통비 및 산악보험)
농협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 거린사슴-돌오름-영아리오름-마보기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산악(8,201m)등정
1992년 8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초호준(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카스산 히말라야 브로드피크(8,047m)등정
2000년 10월 29일 파카스산 히말라야 시사피크(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네발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카스산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네발 히말라야 안나푸르네(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원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네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8일 파카스산 히말라야 가시브(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카스산 히말라야 가시브(8,068m)등정
2006년 9월 20일 네발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훈장 영호장수훈(체육훈장 영호장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현 학 봉

•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010-9838-6552)

그랜드 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서 서광로 240-1 (2층)

감귤 신제품 분양

2020년 봄 출하 목록 분양 접수 중

민감류

레드향(무독) · 천해향(무독)
한리홍 · 탐나는종 · 왕금향
미니향 · 아마니스
제리몬(레몬)

조 생

유리실생 · 궁천(궁천변이지)
하례 조생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모

010-2691-1883
010-3055-1885